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Academic Studie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김경희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Kyung-Hee Kim(khkim@silla.ac.kr)

요약

본 연구는 지방사립대 대학생들의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동기를 낮추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변인, 자긍심, 교육서비스, 가정환경, 개인흥미, 학업능력 등으로 도출되었다. 개인흥미요인과 자긍심이 학업중단여부에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 분석에서는 자긍심, 교육서비스, 개인흥미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중단 고려자와 비고려자 두 집단 간에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학업중단 | 만족도 | 개인흥미 | 자긍심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obtain basic data with the intention of lowering the motive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cademic interru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cademic interruption included social variables, sense of self-respect, educational services, home environment, personal interest, academic abilities and so on. It was noted that the factors of personal interest and self-respect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academic interruption, statistically.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factors such as self-respect, educational services and personal interest had significant effects statistically on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Third,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between those who considered halting their studies and those who did not. Therefore, concrete efforts at the university level should be put into practice to enhance students' self-respect for and satisfaction with their universities.

■ keyword : | Academic Interruption | Satisfaction | Personal Interest | Self-Respect |

1. 서론

지금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변화의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최고점에 이른 후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대학 간 학생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전문대학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업중단비율이 30%에서 40%에 이르면서 대학의 중도탈락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및 대학발전논의 등이 핵심적인 주제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2000년 비수도권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5.0%, 4년제 대학의 경우 3.9%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의 경우 각각 7.7%, 5.0%로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여 2010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대학의 학업중단율은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

대학교육기관 운영 측면에서 대학생의 휴학 및 제적은 잠재적 졸업자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학생 유지문제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할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는 대학이 입학생 감소와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로써 균형 잡힌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2].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신입생의 미충원 및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내 학생 자원의 유출은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협요인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질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학문 프로그램의 질은 안정적인 등록 환경 즉, 재학생 확보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3]. 대학 차원에서 볼 때 학생들의 퇴학, 휴학 및 전학 등과 같은 학업중단은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며,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든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대학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수-학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피할 수 없다[4].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사립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5]. 둘째, 학생의 입장에 학업중단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휴학 또는 자퇴 등의 학업중단은 직업획득 및 이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을 야기하며,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추가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6].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1997년 이후 국가 경제위기 및 노동시장 침체,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간 사회적 대우의 격차, 대학의 서열화, 대학정원 자율화정책과 4년제 대학 편입학 모집정원 확대 정책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정책이외의 경제변화,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학의 특성 및 학생의 부적응 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학생들의 중도탈락은 이처럼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에 의한 사회문제로도 간주될 수 있다[7-10].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최근 대학생의 학업중단 즉,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자료에 의한 연구[2]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9][11], 대학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4][12-14],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5-18] 등이 있으며 학생생활의 만족도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도 있다[19].

이와 같이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사실 대학의 위기가 지방대학이 더 위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사립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함께 파악하여 향후 재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는 대안을 위한 기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국내 학령인구의 변화와 대학생 학업중단을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 1000명으로 전년(1006만 2000명)보다 16만 1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는 초·중·고 및 대학에 다닐 연령대인 만 6세에서 21세까지 인구를 말한다. 학령인구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4년(992만 5000명) 이후 46년 만이다. 학령인구는 ‘베이비 붐’이 막바지에 달했던 1965년 1040만 3000명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1980년 1440만 1000명까지 증가했지만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조금씩 줄어들더니 2003년 1000만 명대(1092만 9000명)로 내려앉았다. 현재의 추세라면 2015년에는 800만 명대(872만 8000명)로, 2018년 700만 명대(791만 4000명), 2022년에는 600만 명대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1970년대 중반 가족계획이 본격화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 4.54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학령인구 중 만 21세가 태어난 1989년에 1.56명으로 떨어졌다. 나이가 가장 어린 학령인구인 만 6세가 태어난 2004년에는 1.15명으로 낮아졌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이제 경제,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전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20].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최고점(69만명)에 이른 후 2016학년부터 갈수록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미 2008년도 미충원을 30%이상 대학이 27개교(대학 17개, 전문대학 10)에 이르고 있다[21].

이에 따라 대학 간 학생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이탈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학업중단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 145개교, 대학이 179개교, 대학원이 1,138개교로 조사되었다. 이 중 대학 부설대학원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수는 411개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사립이 359개로 8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제별 사립대학 비중은 전문대

학이 93.8%, 대학 84.9%, 대학원 88.8%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사립대학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1].

표 1. 연도별 수도권/비수도권 학업중단율(4년제대학)
(단위: 명, %)

구분	대학					
	소계		수도권		비수도권	
	제적학생수	비율	제적학생수	비율	제적학생수	비율
2000	60,570	3.8	23,607	3.7	36,963	3.9
2001	64,410	3.9	23,836	3.6	40,574	4.0
2002	76,225	4.4	28,295	4.2	47,930	4.5
2003	72,129	4.1	21,555	3.2	50,574	4.6
2004	78,290	4.3	21,841	3.2	56,449	5.0
2005	78,996	4.3	21,888	3.1	57,108	5.0
2006	77,407	4.2	21,082	3.0	56,325	4.9
2007	78,083	4.1	20,173	2.8	57,910	4.9
2008	92,349	4.8	34,343	4.7	58,006	4.9
2009	80,355	4.1	22,080	3.0	58,275	4.8
2010	78,804	4.0	22,425	3.0	56,379	4.6

주 : 1) 학업중단율=(당해연도 제적 학생수/전년도 제적학생수)×100
 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포함하며,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을 포함함.
 3) 대학에서 교육대학,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제외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부(2010).

2. 학업중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대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념은 중도탈락(withdrawal), 자퇴(drop-out), 편입학(transfer) 등이 있으며, 이 개념들은 학생들의 학업지속과 학업중단이라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9][22].

Garrison(1985)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중도탈락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중도에서 의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한다[23].

고등교육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틀은 다섯 가지 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 둘째, 사회적 접근, 셋째, 경제학적 접근, 넷째, 조직이론적 접근, 다섯째, Tinto의 통합모형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24][25].

첫째, 심리학적 접근은 중도탈락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성격, 동기, 속성 등이 대학 생활의 학문적 도전을 충족하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사회학적

접근은 교육 획득을 광범위한 사회 획득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인종, 성별 등이 포함된다. 셋째, 경제학적 접근은 학생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최소적인 경제적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비용과 효과의 무게를 재는 다른 경제적 결정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공유한다[26]. 넷째, 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조직론적 접근은 교육기관의 조직 및 형식적 구조, 자원, 유대감 형태가 학생유지 또는 탈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다섯째, Tinto(1975),(1992)의 통합 모형 접근은 1990년대 초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통합 모형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집단과 학생 하위문화와 같은 비공식 사회조직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 간 개인적 상호작용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9]. 즉, 학생의 자발적 학업중단 결정은 가정배경, 개인의 능력 및 특성, 목표와 헌신성(commitment), 대학의 공식적 비공식적 학문체제와 사회체제에의 적응 정도를 통합(integration)이라고 하면서, 이 통합정도가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Walberg, Fraser, & Welch(1986)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약 2000여개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는 9개의 변인들로 학습자의 능력, 학습자의 나이, 학습동기 및 자아개념, 교수의 양, 교수의 질, 가정의 심리적 환경, 교실 혹은 학교환경, 동료의 특성, 과외활동 등을 제시하였다[27].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재웅(1991)은 개인지향접근과 상호작용 접근 등을 통합한 종합모형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남학생, 고등학교 성적 등이 학업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오영재(2005)는 대학간 학생이동 영향요인으로 대학이전요인(진로지도, 대학선택, 가정 및 친구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대학평판, 취업가능성)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결과 제시하였다[12]. 김수연(2006)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해서 완성한 집단과 휴학 및 중퇴를 경험한 집단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적

변수(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지와 학교 소재 일치)와 부모의 변수(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직업, 가구소득 수준), 기관변수(기관형태와 기관소재)를 독립변수로 중도탈락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 비학령기, 거주지가 대학 소재지와 일치하는 학생들이 학업지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김성식(2008)은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4년제 대학생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만족도가 낮을수록 재수나 편입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중단의 가능성은 남학생일수록, 실업계졸업생, 전문대학 진학자들,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13]. 노혜란, 최미나(2008)는 대학생 중도탈락 영향요인으로 학교와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 불분명, 전공적성불일치,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좋을 경우,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 중도탈락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4]. 권혜진(2010)은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 재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결과 제시하였다[17]. 최명선·강지희(2008)는 대학생 중도탈락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중도탈락 후 일부는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인으로 잘 적응, 생활하거나 상위학교로 편입, 재입학을 시도하였으며 일부는 반복적인 중도탈락으로 유보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9]. 강승호(2010)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결과 학업성취에 성별, 대학 수학능력시험성적, 음주정도, 유능감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도탈락 생각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공만족도, 정신건강, 대학생활만족도, 유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덕로·이성석(2002)은 학생만족도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 대학에 대한 자긍심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결과 확인하였다[19].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간단히 재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대부분 종합모형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어온 종합모형을 적용하면서 대학생활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 국내외 학업중단 영향요인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영향요인)	종속변수
Tinto(1975, 1992)	가정배경, 개인의 특성, 고등학교 교육결과 (학업목적에 대한 헌신성, 기관에 대한 헌신성) / 통합정도(통합모형적 접근)	중도탈락
Wallberg, Fraser & Welch(1986)	학습자의 능력, 학습자의 나이, 학습동기 및 자아개념, 교수의 양, 질, 가정의 심리적 환경, 동료의 특성, 과외활동(중합모형)	학업성취도
김재웅(1991)	중합모형: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가능 (개인지향접근과 상호작용접근을 통합)	학업중단
이병식(2003)	입학난이도수준, 대학교무, 설립유형, 대학의 소재지	학업중단
오영재(2005)	대학이전요인(진로지도, 대학선택, 가정 및 친구요인), 학생개인요인, 단위대학요인(학문적분위기, 사회적분위기, 생활환경, 물리적환경), 문화경제적요인	대학간 학생이동
김수연(2006)	개인적 변수, 부모의 변수, 기관변수(기관 형태와 기관소재) :2년제 및 4년제대학	중도탈락
김성식(2008)	가정배경 및 고등학교 경험, 대학특성, 대학선택요인, 대학경험:2년제 및 4년제대학	대학이동 계획 학업중단
노혜란·최미나 (2008)	개인적 영역, 학문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중부소재 4년제대학	중도탈락
권혜진(2010)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변인(사이버대학)	중도탈락
강승호(2010)	개인변인, 학업적 변인, 건강관련변인, 사회심리적변인	중도탈락

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III. 실증연구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 변인, 사회적 변인, 교육서비스 변인, 가정환경 변인, 자긍심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학업중단(자퇴)여부와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긍심이 학업중단 영향변인으로는 연구되지 않았으나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기존연구에서 이미 제시된바 있다 [19].

따라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학업중단고려여부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지역 지방 사립대학인 s대학의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동안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384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작성되어 실행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은 학업중단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독립변인 문항 25개[10][14][17][19][28],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 5개, 대학생활만족도 1문항, 기타 7개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한글 SPSSWIN 18.0을 이용한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남성이 167명(43.5%), 여성 217명(56.5%)으로 1학년이 74명(19.3%), 2학년 144명(37.5%), 3학년 104명(27.1%), 4학년 62명(16.1%)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조사항목에서는 부산시내 262명(68.2%), 부산시외 122명(31.8%)로 나타났다.

표 3. 인구 통계적 특성과 휴학, 전과 및 자퇴고려 여부 조사

문항	구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67(43.5)	학년	1학년	74(19.3)
	여성	217(56.5)		2학년	144(37.5)
				3학년	104(27.1)
				4학년	62(16.1)
부모님 직업 (부)	무응답	9(2.3)	부모님 직업 (모)	무응답	28(7.3)
	농업	12(3.1)		농업	10(2.6)
	사무직(공무원)	120(31.3)		사무직(공무원)	49(12.8)
	전문직	14(3.6)		전문직	11(2.9)
	자영업	136(35.4)		자영업	93(24.2)
	기술직 기타	60(15.6) 33(8.6)		기술직 기타	17(4.4) 176(45.8)
거주지 주소	부산 시내	262(68.2)	부모연간 수입 합계	무응답	37(9.7)
	부산 시외	122(31.8)		3천만원 미만	98(25.5)
				5천만원 미만	141(36.7)
				7천만원 미만	55(14.3)
			7천만원 이상	53(13.8)	
휴학계획	있다	156(40.6)	자퇴계획	있다	113(29.4)
	없다	228(59.4)		없다	271(70.6)
휴학경험	있다	121(31.5)	휴학이유	군입대	85(22.1)
	없다	260(67.7)		경제적이유	12(3.1)
무응답	3(0.8)	취업준비		10(2.6)	
휴학시기	1학년	73(19.0)		학교불만족	3(0.8)
	2학년	31(8.1)		유학(여학연수)	9(2.3)
	3학년	9(2.3)		기타	9(2.5)
	4학년	5(1.3)	무응답	256(66.7)	
	무응답	266(69.3)			
전과 의도	있다	130(33.9)	전공적성불만족 취업문제 대인관계 기타 무응답	54(14.1)	
	없다	254(66.1)		79(20.6)	
		14(3.6)			
		16(4.2)			
		221(57.6)			

합계 384 명(100%)

향후 자퇴계획여부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있다 113명(29.4%), 없다가 271명(70.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과 의도에서는 있다가 130명(33.9%), 없다가 254명(66.1%)로 나타났다. 전과고려 이유로는 1위가 취업문제 79명(20.6%), 2위는 전공적성불만족으로 54명(14.1%)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위해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요인분석결과 총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문항들의 개별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요인, 자긍심 요인, 교육서비스요인, 가정환경요인, 개인흥미요인, 학업능력요인 등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개인적 변인이 개인흥미와 학업능력요인 두 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 모두 신뢰도 분석결과 $\alpha=0.7$ 이상으로 매우 높

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재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신뢰도분석

구분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Eigen value (분산 %)
F1 사회적 변인	·학교행사에 적극적 참여	0.810	7.151 (28.602) $\alpha=0.842$
	·동료선호배관계 좋은편	0.762	
	·친구들이대학생활에 도움	0.761	
	·학과친구들과 전공정보교환	0.751	
F2 자긍심	우리대학은 편안함, 친밀감 주는 대학	0.807	2.637 (39.149) $\alpha=0.827$
	·동문활동 및 대학발전 참여	0.799	
	·본교학생인 것 자랑스럽다	0.672	
	·본교입학이 자랑스럽다	0.644	
	·입학당시보다 대학인지도가 높아짐	0.595	
F3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우수	0.777	1.755 (46.170) $\alpha=0.777$
	·교육서비스우수	0.676	
	·다양한 장학제도 구비	0.635	
	·취업지원과 정보 잘 제공	0.631	
	·학과교수님과 활발한 교류	0.458	
F4 가정 환경	·부모님의견에 잘 따르는 편	0.750	1.624 (52.664) $\alpha=0.712$
	·가정 분위기 활발	0.701	
	·학교생활에 적극적 지원	0.658	
	·학비마련에 어려움 없음	0.623	
	·통학에 곤란 없음	0.469	
F5 개인 흥미	·나의 전공에 흥미	0.778	1.235 (57.604) $\alpha=0.794$
	·대학 강의에 흥미	0.756	
	·대학생활에 흥미(재미)	0.685	
F6 학업능력	·나 자신의 지적능력 믿음	0.813	1.050 (61.806) $\alpha=0.800$
	·나 자신을 믿음	0.796	
	·대학수업을 잘 따라감	0.590	

KMO와 Bartlett의 검정=0.864 (유의확률=0.000)

3.2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 분석

먼저, 자퇴계획 고려여부에 따라 집단 간 학업중단 영향요인 개별구성요소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대체로 자퇴를 계획한 적이 있는 집단이 자퇴 비계획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긍심요인에서 평균 2.8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학업중단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전과 의도와 휴학계획여부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과 의도와 휴학계획이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 향후 자퇴를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점에 있어서도 자퇴계획 집단이 비계획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학업중단 영향인 개별구성요소 차이검증

요인	측정항목	학업중단(자퇴)		t-value
		계획	비계획	
		M(S.D)	M(S.D)	
F1	학교행사에 참여	3.13(1.221)	3.44(1.109)	-2.434*
	동료선배관계 좋은편	3.40(0.996)	3.58(0.890)	-1.753
	친구들이대학생활에 도움	3.38(1.029)	3.62(0.902)	-2.307*
	학과친구들과 전공정보교환	3.12(1.016)	3.43(0.947)	-2.888**
	합계	3.26(0.894)	3.53(0.771)	-3.002**
F2	편안함, 친밀감 주는 대학	2.60(1.074)	2.94(1.075)	-2.788**
	동문활동 및 대학발전 참여	2.55(0.964)	3.04(0.948)	-4.612***
	본교학생인 것 자랑스럽다	2.73(1.002)	3.07(0.879)	-3.391**
	본교입학이 자랑스럽다	2.91(1.065)	3.34(0.963)	-3.811***
	대학인지도가 높아짐	3.19(1.008)	3.35(0.946)	-1.443
합계	2.80(0.796)	3.15(0.729)	-4.185***	
F3	행정서비스우수	2.94(0.957)	3.08(0.935)	-1.357
	교육서비스우수	3.07(0.764)	3.27(0.821)	-2.245*
	다양한 장학제도 구비	3.04(1.060)	3.31(0.899)	-2.618**
	취업지원과 정보 잘 제공	2.97(0.921)	3.10(0.955)	-1.192
	학과교수님과 활발한 교류	3.00(1.044)	3.34(0.940)	-3.120**
합계	3.00(0.684)	3.22(0.662)	-2.909**	
F4	부모님의견해 잘 따르는 편	3.43(0.885)	3.46(0.957)	-.262
	가정 분위기 활발	3.89(1.055)	3.90(0.961)	-.026
	학교생활에 적극적 지원	3.56(0.981)	3.73(0.938)	-1.590
	학비마련에 어려움 없음	3.12(1.148)	3.41(0.988)	-2.536*
	동학에 곤란 없음	2.89(1.397)	3.33(1.241)	-3.011**
합계	3.38(0.751)	3.56(0.698)	-2.324*	
F5	나의 전공에 흥미	3.19(1.114)	3.69(0.926)	-4.604***
	대학 강의에 흥미	2.86(1.017)	3.47(0.815)	-6.236***
	대학생활에 흥미(재미)	3.05(0.990)	3.58(0.891)	-5.068***
	합계	3.03(0.854)	3.58(0.733)	-6.351***
F6	나 자신의 지적능력 믿음	3.50(1.001)	3.73(0.881)	-2.164*
	나 자신을 믿음	3.88(1.053)	3.95(0.949)	-.658
	대학수업을 잘 따라감	3.42(1.006)	3.77(0.856)	-3.515***
	합계	3.60(0.852)	3.82(0.762)	-2.451*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을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즉, 자퇴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이분형 척도로 조사하였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류 정확도는 70.5%이며,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fit)를 나타내는 값으로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 (correspondence)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값이 유의적이지 않기에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

낸다.

표 6. 개인특성변수에 따른 학업중단 차이분석

변수	구분	학업중단(자퇴)		합계(%)	χ ²
		계획 (%)	비계획 (%)		
성별	남성	44(11.5)	123(32.0)	167(43.5)	1.350
	여성	69(18.0)	148(38.5)	217(56.5)	
학년	1학년	18(4.7)	56(14.6)	74(19.3)	3.720
	2학년	47(12.2)	97(25.3)	144(37.5)	
	3학년	26(6.8)	78(20.3)	104(27.1)	
	4학년	22(5.7)	40(10.4)	62(16.1)	
학점	무응답	17(4.4)	33(8.6)	50(13.0)	9.979*
	2.0미만	6(1.6)	2(0.5)	8(2.1)	
	2.0-2.9	16(4.2)	38(9.9)	54(14.1)	
	3.0-3.9	56(14.6)	160(41.7)	216(56.3)	
부모 소득	하	45(11.7)	90(23.4)	135(35.2)	1.550
	중	38(9.9)	103(26.8)	141(36.7)	
	상	30(7.8)	78(20.3)	108(28.1)	
주소지	시내	84(21.9)	178(46.4)	262(68.2)	2.755
	시외	29(7.6)	93(24.2)	122(31.8)	
전과 의도	있다	63(16.4)	67(17.4)	130(33.9)	34.288***
	없다	50(13.0)	204(53.1)	254(66.1)	
휴학 계획	있다	56(14.6)	100(26.0)	156(40.6)	5.297*
	없다	57(14.8)	171(44.5)	228(59.4)	
입학 경로	정시	62(16.1)	147(38.3)	209(54.4)	0.031
	수시	46(12.0)	111(28.9)	157(40.9)	
	기타	5(1.3)	13(3.4)	18(4.7)	
출신 고교	일반계	87(22.8)	224(58.6)	311(81.4)	2.077
	전문계	23(6.0)	40(10.5)	63(16.5)	
	기타	3(0.8)	5(1.3)	8(2.1)	
전체		113(29.4)	271(70.6)	384(100)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자긍심(β=0.418)과 개인흥미요인(β=0.724)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개인흥미요인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전공공부와 강의에 대한 흥미가 높고,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높을수록 학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7. 학업중단(자퇴)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Wals	유의 확률	Exp(B)
학업 중단 의도	F1: 사회적 변인	.192	2.535	.111	1.212
	F2: 자긍심	.418	10.646	.001	1.519
	F3: 교육서비스	.134	1.198	.274	1.144
	F4: 가정환경	.124	1.063	.303	1.132
	F5: 개인흥미	.724	29.940	.000	2.063
	F6: 학업능력	-.009	.006	.940	.991
Hosmer와 Lemeshow(관측치-예측치)의 카이제곱값= 9.930, df=8, Sig.=0.270 전체%=70.5					

반대로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낮고, 학업과 관련된 개인흥미가 낮을수록 학업중단비율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공공부에 대한 개인흥미요인은 전공적성불일치와 관련이 있으며 전공적성불일치가 학업중단,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15][30]. 그러나 그 외 변인들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업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 3을 검증한 결과 [표 8][표 9]와 같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분석을 위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선형모형에 대한 전체설명력이 $R^2=.363$ 으로서 36.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긍심($\beta=0.513$), 교육서비스($\beta=0.281$), 개인흥미요인($\beta=0.148$)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자퇴) 고려여부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집단($m=2.72$)이 비교려집단($m=3.16$)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계수 Beta	t-value
만족도	F1: 사회적요인	.076	1.862
	F2: 자긍심	.513	12.567***
	F3: 교육서비스	.281	6.871***
	F4: 가정환경	-.047	-1.158
	F5: 개인흥미	.148	3.629***
	F6: 학업능력	-.033	-.796
$R^2=.363$, $F\text{-value}=37.291***$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

표 9. 학업중단고려자와 비고려자의 대학생활만족도 차이분석

	학업중단(N)	Mean(S.D)	t-value
만족도	고려자(113)	2.72(0.881)	-4.036***
	비고려자(271)	3.16(1.015)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

IV. 결론 및 시사점

지금 국내 대학들은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함께 재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졸업 때까지 해당 대학에 계속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록경영도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사립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대학생활만족도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초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들이 입학자원의 한계에 처한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 변인으로는 사회적 변인, 자긍심, 교육서비스, 가정환경변인, 개인흥미변인, 학업능력변인 등 총 여섯 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흥미변인과 자긍심 변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수에 따른 학업중단 차이분석에서는 학업중단을 계획하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학점이 낮으며, 전과의도와 휴학계획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긍심, 교육서비스, 개인흥미변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긍심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 셋째, 학업중단 고려자와 비고려자의 대학생활만족도 차이분석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고려자 집단이 비고려자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학업중단을 감소시키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공부에 대한 개인흥미와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사립대의 경우 대학에 대한 자긍심 즉 자부심과 애교심이 높을수록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 향상에 많은 노력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집단은 비계획 집단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기에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자긍심 변인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표본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전국적인 표본이 아니라 한정된 표본으로 표본의 대표성부족이다. 그리고 연구내용에 관한 것으로 학업중단 영향요인의 개별 속성변수들을 기존 선행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새롭게 개발하지 못한 점과 대학의 특성과 학과차별성 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군입대를 제외한 휴학생과 자퇴생 및 제적생들을 포함한 실제 중도탈락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kedi.re.kr/~> 2010
- [2] 김수연, “학생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111-141, 2007.
- [3] A. Seidman, “Retention revisited. College and University,” 제71권, 제4호, pp.18-20, 1996.
- [4] 이병식,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제41권, 제2호, pp.135-154, 2003.
- [5] <http://www.segye.com> ~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 70%에 육박, 세계일보, 2009.
- [6] 김용남,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7] 김수연,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Two-year College Student Attrition in Korea”, 한국교육, Vol.29, No.1, pp.123-149, 2002.
- [8] 김수연, “교육성취전략으로서 편입학과정 탐색”, 진로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진로교육연구, pp.70-91, 2004.
- [9] 김수연,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분석”,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pp.33-62, 2006.
- [10] 김수연, “대학생의 학업지속 경향성 척도 개발과 양호도 검증”,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1-29, 2010.
- [11] 최길순,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광역시 D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비즈니스리뷰, 제3권, 제1호, pp.95-118, 2010.
- [12] 오영재,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pp.327-356, 2005.
- [13] 김성식,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제35권, 제1호, pp.227-249, 2008.
- [14] 노혜란, 최미나,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S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pp.89-107, 2008.
- [15] 임연옥,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1-14, 2007.
- [16] 주영주, 장미진, 이현주, “사이버대학 학생의 중도탈락 경험에 근거한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3호, pp.209-233, 2007.
- [17] 권혜진,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 재학생의 중도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404-412, 2010.
- [18] 임연옥, 이광희,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제30권, 제3호, pp.321-348, 2003.
- [19] 이덕로, 이성식, “학생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고객만족관점을 중심으로-”, 산학경영연구, 제15권, pp.1-24, 2002.
- [20] <http://www.seoul.co.kr> ~ 올 학령인구 1000만 붕괴, 서울신문, 2010년 2월 20일.
- [21] <http://kyokim.cafe24.com> ~
- [22] J. E. Hoyt, and B. A. Winn,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ies: Differences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NASPA Journal, Vol.41, No.3, p.395, 2004.
- [23] D. R. Garrison, Status and trends of distance education, Lund, Sweden: Lector Publishing, 1985.
- [24] V. Tinto,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5, No.1, pp.89-125, 1975.
- [25] V. Tinto,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B. Clark. and G. R. Neave(eds.)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New York: Pergamon Press. pp.1697-1707, 1992.
- [26] E. Jensen, “Student Financial Aid and Persistence in Colleg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52, No.1, pp.280-293, 1981.
- [27] H. J. Walberg, B. J. Fraser, and W. W. Welch, “A test of a model educational productivity among senior high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79, No.3, pp.133-139, 1986.
- [28] 김재웅,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 개인·사회구조·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pp.17-48, 1992.
- [29] 최명선, 강지희,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203-225, 2008.
- [30] 강승호,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3권, 제1호, pp.25-53, 2010.

저 자 소 개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9년 8월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인터넷 마케팅, e-Business, 소비자행동